
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

[가칭,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사업]

기본계획(안)

2023. 12.



해양수산부

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

목 차

I. 수립 배경 및 경위	1
II. 사업계획 수립연혁	3
III. 그간의 성과와 한계	6
IV. 기존계획 검토 및 유사사례 분석	10
V. 기본계획 추진 방향	15
VI. 주요 기본계획	17
VII. 향후 추진계획	31
VIII. 투자계획	32

I. 수립 배경 및 경위

□ 추진 배경

-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재난예방·교육을 담당하도록 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에 따라
 -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수립한 '세월호 선체 보존·처리계획서'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
 - * 2017년 3월 21일 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
 - 선체조사위원회가 2018년 8월 수립한 '세월호 선체 보존·처리계획서'를 통해 선체를 파손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확정
 -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기념관 및 교육체험관을 건립

□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기본계획 개요

- (법적근거) 『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』 제43조(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)
- (목적)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수립한 「세월호 선체처리계획」에 따라 보존·전시 및 교육·기억·추모를 위한 공간 조성
- (이행주체 / 기간) 해양수산부 / 2021년~2029년
- (사업위치)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901번지 인접 공유수면
- (사업내용) 부지조성 34,000㎡, 복합관 건립(건축 연면적 13,058㎡), 선체수리 및 이동거치, 교육 및 전시콘텐츠 조성

□ 기본계획 수립 추진 과정

- 기술자문(4차례) 및 일반자문(4차례), 유사시설 현장답사(8개소), 선체 등 전시시설 활용 유사시설 조사(13개소), 가족단체 대표 설명회 및 간담회(7차례) 등을 거쳐 기본계획(안) 마련

2022.01	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
2022.02	착수보고회
2022.02.~03.	1차 기술자문 및 일반자문
2022.03.~06.	전시 및 안전체험 유사시설 현장답사 - 전시시설, 추모시설, 안전체험시설 현장답사
2022.05.	2차 기술자문 및 일반자문
2022.06.	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- 설계·시공 일괄입찰(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)
2022.08	중간보고회
2022.09.	3차 기술자문 및 일반자문
2022.10.	세월호 가족단체 대표 설명회
2022.11.	선체 내부활용 방안 가족단체 대표 설명회 - 선체 내부활용 방안 가족단체 요청사항
2022.12.	세월호 가족단체 대표 간담회
2022.12.~2023.09	선체 등 전시시설 활용 유사시설 조사 - 선체, 항공기, 열차 등 전시시설 활용사례 조사
2023.05.	선체 내부활용 방안 가족단체 대표 설명회
2023.06.	4차 기술자문 및 일반자문
2023.06.~07	가족단체별 간담회(3개 단체)

II. 사업계획 수립 연혁

예비타당성조사 면제
(2020.10)

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
(사업기간 2021~2027, 총사업비 1,523억원)

- ☐ (사업내용)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각종 기록물 등 전시·보관 및 현장 체험·관찰을 통한 교육적 효과 등 기억의 장소 조성
- ☐ (사업규모) 선체 수리 및 이동 거치 1식, 복합관 건립 1식, 부지 조성 3만 4,000m² 및 진입도로 보강 및 2km 확장

사업계획 변경
(2021.04)

기존 사업계획에 전시·콘텐츠 1식 추가
(사업기간 2021~2027, 총사업비 1,768억원)

- ☐ (사업계획 변경내용)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기존 사업계획에서 누락된 전시·콘텐츠 1식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
- ☐ (사업규모) 선체 수리 및 이동 거치 1식, 복합관 건립 1식, 부지 조성 3만 4,000m² 및 진입도로 보강 및 2km 확장, 전시·콘텐츠 1식

사업계획 적정성 검토
(2021.10)

세월호 선체 처리계획 이행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
(사업기간 2021~2027, 총사업비 2,117억원)

- ☐ (사업목적) 「세월호 선체 처리계획 이행」은 2018년 8월에 선체조사 위원회가 의결한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에 따라 세월호 인양 선체의 보존·전시 및 교육·기억·추모를 위한 공간 조성
- ☐ (사업규모) 부지조성 34,000m², 복합관 건립(건축 연면적 12,153m²), 선체수리 및 이동거치, 교육 및 전시콘텐츠 조성
- ☐ (기술적 검토)
 - (토목 부문) 해상조건, 기상조건, 수심 및 지반조건 등을 고려한 개략 단면을 작성하여 보다 정확한 총사업비 추정

- (건축 부문) 사업계획의 시설 면적을 준용하고 적정단가를 적용한 건축공사비와 전시공사비, 공원조성비 등을 반영
- (선체 보수의 검토 방향)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손상을 최소화하고, 향후 주어진 목적으로 활용 시에 유지·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형 보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시행
 - 교육, 추모 등을 위한 공간에는 구조 보강 이외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최소한의 내부 인테리어를 반영
- (선체 이동) 수리조선소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거치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 작업하는 계획을 대안으로 검토

□ (비용 추정) 총사업비는 2019년도 말을 기준으로, 지침에 따라 공사비, 시설부대경비, 용지비, 예비비로 구분

구 분	금 액(백만원)	비 고
A. 공사비	160,452	
1) 토목부분	100,093	
2) 건축부분	50,239	· 세월호 생명기억관 · 전시·콘텐츠 공사비
3) 선체 수리 및 이동	10,120	
B. 부대비	17,736	· 설계비, 감리비, 시설부대비 · 조사 및 측량비 등
C. 용지보상비	14,257	· 선체이동로 지장물 보상비 반영
D. 예비비	19,245	· (A+B+C)의 10%
총사업비	211,690	

□ (정책성 분석) 사업 추진 여건 중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과 지역 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에 대해 검토

- (정책일치성 검토) 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배경과 목적 등을 고려할 때, 본 사업과의 방향성이 일치

- 다만 「제4차(2021~2030) 전국 항만기본계획」과 「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(2019~2040)」에는 본 사업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본 사업과 일치하지 않음

- **(사업의 준비정도 검토)** 전체적인 사업의 준비 정도는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되며,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, 운영단계 전 특수법인 설립 추진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
- **(재원조달 가능성 검토)** 총사업비 및 운영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재원조달계획이 필요
- **(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)** 해양수산부, 목포시 등의 본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매우 높음. 본 사업 추진으로 방문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선호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

□ **(정책제언)**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언

- **(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)** 사업이 적절한 규모로 추진되는 추후 과정에서는 부족했던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보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
- **(토목 부문 사업계획 구체화)** 호안시설 단면·평면 계획, 배후부지 기반처리계획, 육상거치대 설치계획, 도로확장 및 보강구간 설정 등 구체적 세부계획 필요
- **(건축 부문 사업계획 구체화)** 입체영상관, 기억공간, 추모공간, 안전체험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
- **(선체 부문 대안검토)** '최종 거치 장소로 바로 운송 작업하는 경우'에 대한 검토가 필요
- **(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협의)**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가족과의 협의·지원이 필수적임

Ⅲ. 그간의 성과와 한계

1 주요 성과

-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을 위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, 부지매립계획 확정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, 토목·건축·선체·콘텐츠 등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구체화

①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

- (입찰방법) 설계·시공 일괄입찰
- (낙찰자 결정방법)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
- (입찰방법 제안사유) 최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고품질 설계 고려, 선체이동 등 고난이도 공사의 민간 기술 및 창의적 공법적용, 다양한 아이디어 적극 반영 필요
 -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은 토목, 건축, 선체 이동·수리,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계획 및 기술 등이 요구되는 사업
 - 일괄입찰을 통해 세월호 선체 이동 및 복합관 건립 등에 최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고품질 기술력의 설계가 필요함

② 부지매립계획 조정 및 공유수면 매립계획 변경

- (부지매립계획 조정) 「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 사업계획 적정성검토(‘21.11, 기재부)」에서는 기존 준설토 투기장의 일부구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평면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,
 - 주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, 목포해상케이블카 등의 주변 인프라 연계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고하도측으로 매립계획을 변경하였으며, 이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

- (기본계획 변경 필요성)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에서는 주변 인프라 연계와 접근성을 위해 고하도측 매립, 선체이동을 위한 추가매립 필요성, 이용계획에 따른 '항만 친수시설'로 결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추진
- 주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, 목포해상케이블카 등의 주변 인프라 연계와 접근성을 위한 고하도측 매립계획 반영
 - 세월호 선체가 매립부지에 영구 거치되기 위해서는 선체이동로에 대한 공유수면의 일부 추가 매립이 필요하며 추가 매립부지는 향후 진입로, 주차장 등 부지로 활용 방안 추진
 - 기존 항만 기본계획 항만시설용부지(I) 일부가 세월호 선체처리 이행사업의 이용계획에 따라 추모·기억·전시를 위한 시설,
 - 안전체험·교육을 위한 시설인 '친수시설'로 결정하고, '지원시설' 확보를 위해 추가 매립을 통한 형상 변경 필요
- (기본계획변경)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친수시설 및 지원시설의 면적은 다음과 같음



구 분		당초	변경	증·감	비 고
계		75,800㎡	108,920㎡	증 33,120㎡	
항만시설 (지원시설)	항만시설용부지(I)	75,800㎡	74,920㎡	감 880㎡	형상변경
항만시설 (친수시설)	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(가칭,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)	-	34,000㎡	증 34,000㎡	

- 선체내부 활용을 위한 선체의 시설물 적용 근거법령(건축법 적용)이 명확하지 않고, 의견수렴 논의과정에서의 각 유가족 단체 및 전문가 등의 견해가 다양한 상황이므로 협의 도출에 한계

1 선체내부 활용방안 근거법령 및 의견수렴의 한계

- (근거 법령) 선체내부를 활용(사용) 할 경우 국토부, 목포시 등 관계 기관은 건축물로 간주되어 건축법* 적용 의견이며, 선체를 건축법으로 적용시 주요 구조부 전반의 보강 및 신설이 필요

* (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) '건축물'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·공연장·점포·차고·창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

** 향후 기억관 건립 완공시 세월호는 토지에 정착하고 전시장으로 활용할 경우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음 / 국토부·목포시청 협의 의견('22.11, '23.3)

- 현재, 파손된 세월호 선체는 「선박법」 상 등록된 선박이 아니며('16 직권말소), 「시설물안전법」 과 「건축법」 상 시설물이나 건축물로 볼 수도 없음

- 선체내부를 활용하는 방안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체 보수·보강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과정에서 목포시 등 인·허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관련법령 적용 검토

* 선체를 건축물로 해석하여 건축구조로 재구성하는 경우 내화구조, 소방설비, 지반으로 하중전달을 위한 기둥신설, 수직동선 확보를 위해 선체 전반의 보강 및 신설 필요

- (관계자 의견수렴) 선체내부 활용을 위한 유가족 단체의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협의 도출에 한계

- 선체내부 활용에 대한 유가족 단체의 세부적인 요청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체 내부활용에 대한 검토

- 유가족 각 단체에서도 선체내부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며*, 활용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** 등도 다양한 상황임
 - *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(선체내부 전면활용),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협의회(선체내부 일부 및 3D 영상활용), 0416 단원고 가족협의회(선체내부 최소화 활용)
 - ** (전문가 의견) 유가족의견대로 선미보강, 세월호 파손원형보존과 안전성 측면에서 선미보강 불요
- 따라서 후속 설계과정에서 선체내부 활용에 대한 가족단체 요청사항 등 세부적인 상세검토와 추가적인 협의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

〈 가족단체 요청사항 〉

- ① 선체내부 탐방경로 조성(D데크→NAVI데크)
- ② 스테빌라이저 등 설명을 위해 선체 E-데크 탐방로 조성
- ③ 선체수습 등으로 제거된 선미부분 원형복원
- ④ 희생자 추모공간 및 탐방객 휴식공간 조성
- ⑤ 우현쪽으로 남·여학생 객실(다인실, 4인실, 6인실, 8인실) 복원
- ⑥ 조타실은 현 상태 정리보존, 선박조종시물레이션 공간 별도조성
- ⑦ B데크 안내데스크 및 중앙로비 복원, 로비진행 활동영상 상영
- ⑧ NAVI데크 우현 통행로 확보

IV. 기존계획 검토 및 유사사례 분석

1 세월호 선체 보존·처리 계획 검토

① 참사의 증거 및 기록물로서 세월호 선체를 현재 상태로 영구거치 방안

- (파손선체 원형보존)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도록 파손된 선체 상태를 최대한 그대로 보존 함
 - 선체의 구조나 안전성 측면에서 활용 공간이 없거나 제한적이므로 별도의 복합관을 건설해 안전교육·체험공간 및 추모관, 기록공간으로 활용

② 인양된 선체를 보존하여 사고의 간접적 체험과 치유의 시작

- (체험과 교육) 세월호는 당시의 사고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,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난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공간으로 활용
 -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추모공간이 마련되고 있으며, ‘인양된 선체’는 현장성으로 인해 실제감을 가질 수 있음

③ 희생자를 기억하는 현장이자 기억을 공유하는 증거적 공간

- (기억과 증거) 세월호 선체는 희생자를 기억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상물
 -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오래도록 유지 시킬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되어야 하며,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

4 안전과 교육, 치유와 추모의 전이가 발생하는 출발점

- (안전과 교육) 세월호는 인양 과정,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과정, 합동영결식, 선체 직립 과정 등 일련의 과정들이 사회적으로 기억을 공유하게 됨으로써
 - 기록과 기억을 통해 안전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증거로 ‘인양된 선체’는 국내·외적으로도 매우 중요
 - 세월호 선체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,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체의 공간을 교육의 장, 기억의 장, 추모의 장, 치유의 장 등으로 활용

5 교통의 기억이 희망의 증거로 전이되는 치유의 공간

- (치유의 공간) 유가족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사고 관련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
 - 세월호 선체를 활용한 기념관 건립은 참사에서 기인하는 슬픔과 좌절의 기억을 안전과 교육, 추모와 치유, 체험과 관광으로
 - 기억을 ‘전이(轉移)’ 시킴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려는 한국사회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

6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한 희생자와 방문객의 유대감 형성공간

- (유대감 형성) 비극적 재난 뒤에는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념관이나 기념조형물이 건립되어, 이들 물리적 공간을 매개체로 한 희생자와 추모객 사이의 유대감 조성 필요
 - 관람자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일련의 체험과정을 통해 메모리얼의 의미에 접근하고 감정을 공유

- 역사적 메모리얼은 그 자체로서의 완결된 미적, 상징적 가치를 중요시 했으나, 현대 도시의 메모리얼은 공공 공간으로서의 체험과 소통을 중요시


7 사회적 책임의 공유와 연대, 정신적 외상의 위로와 추모

- (사회적 책임) 세월호의 보존과 기억관 건립은 그 자체가 반성적 성찰이 내포되어 있음
 - 사고가 참사로 악화된 것이 화물과적을 통한 선사의 이익 추구 행위, 선원들의 안전불감증과 직업적 책임의 부재, 구조를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결합된 것이라 전제했을 때,
 - 교육의 범주를 해상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필요

8 국민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

- (복합문화공간) 참사에 대한 기억, 공감, 애도 및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국민이 꾸준히 찾을 수 있는 공간, 체험 및 교육적 성격과 더불어 예술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지닌 공간
 - 손상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인 선체가 도시계획상 주변 가로환경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의 관광, 체험, 기념 콘텐츠와 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

2 유사사례 분석

구분	주요 내용	주요 시사점
< 제주 4.3평화공원 > 	목적: 제주도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념하고 과거사 청산 시설: 평화기념관, 위령제단, 추념광장, 수변공간, 봉안관 위령탑 각명비 등	-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(복사본 포함)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관리·연구할 수 있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 - 진행 단계별의 자료수집, 연구, 국제적 학술 교류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생명존중의 상징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

<p>〈 천안함기념관 〉</p> 	<p>목적: 천안함 피격 희생자 추모 시설: 천안함 선체, 추모공간, 선실재현공간, 피격 사건 재현, 영상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월호 참사에 대한 거시적인 기록과 더불어 희생자와 생존자, 구조자 간의 우정, 사랑, 희생 등 참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여 전달하는 것이 필요
<p>〈 경기해양안전체험관 〉</p> 	<p>목적: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해양안전 전문체험관 시설: 해양안전메뉴얼관, 해양생존관, 응급처치실습, 해양생존기술실습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생명존중을 기반으로 한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참사를 극복하고 치유로 나아가는 또 다른 대안임을 보여줌 - 해양안전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사회적 교육과 치유공간
<p>〈 대구시민안전체험테마파크 〉</p> 	<p>목적: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건립 시설: 지하철 안전, 교통안전, 심폐소생술, 지진안전, 옥내소화전 등 다양한 안전체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사에 대한 기억을 후대에 전승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반성과 그를 통한 치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세월호 선체의 인양과 선체보존이 의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
<p>〈 태백365세이프타운 〉</p> 	<p>목적: 안전 체험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 시설: 종합안전체험관, 키즈랜드, 케이볼가, 캘린지월드, 소방안전 체험 시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가칭)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시 추모 시설 외 관람자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람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
<p>〈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〉</p> 	<p>목적: 베를린에 설립된 대표적 유대인 학살 관련 추모관 시설: 홀로코스트 탑, 망명의 정원, 연속의 계단, 홀로코스트 보이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적 언어를 통해 감정의 공유와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이며 희생자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적 틀 안에서 미래에 대한 공동의 연대의식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사
<p>〈 워싱턴홀로코스트기념관 〉</p> 	<p>목적: 사회적 차원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며 조성한 시설 시설: 상설 전시관,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전시실, 목격자의 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워싱턴이 홀로코스트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지역이나 홀로코스트 전시와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이 주목 - (가칭)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 전시 및 체험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게 하는 방안, 자료 수집의 범위 설정의 참고사례가 됨
<p>〈 폴란드 아우슈비츠 박물관 〉</p> 	<p>목적: 참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엄청난 비극을 경고 시설: 수용소 벽, 철조망, 발사대, 막사, 교수대, 가스실, 소각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월호 선체의 인양, 보존비용 등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보존하는 것이 추모와 치유의 방법이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반성임을 보여주는 사례

<사례조사 시사점>

- 1) 천안함기념관, 워싱턴 홀로코트스 기념관, 폴란드 아우슈비츠 박물관
→ 기억과 공감, 기록/보존의 공간
- 2) 천안함기념관, 경기해양안전체험관, 4.3평화공원 → 생명존중
- 3) 4.3평화공원,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→ 추모와 치유의 전이
- 4) 대구시민안전체험테마파크, 폴란드 아우슈비츠박물관 → 사회적 책임, 비판적 사고
- 5) 4.3평화공원, 9.11메모리얼, 태백365세이프타운 → 복합전시/체험공간

기억과 공감
기록·보존의
전승

추모와 치유
추모의
예술적 전환

생명존중
교육 및
가치확산

사회적
책임/비판적
사고

힐링과 휴식
다양한 활동의
문화공간

3

자문회의 의견수렴 종합

◇ 관련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각 4차례의 기술·일반자문회의를 수행하여 의견 수렴

- ☐ (세월호 선체중심) 타 기관과 구분되기 위해 세월호 선체중심으로 추모와 치유의 메시지나 콘텐츠 구축
- ☐ (사회적 책임) 사회적 책임의 인지, 강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콘텐츠화가 필요
- ☐ (비판 / 성찰)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, 문화적, 법적, 제도적 원인 등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
- ☐ (연대기적 / 테마적) 기억관, 체험관의 전략과 컨셉, 스토리라인이 중요하며, 연대기적 구성, 상호적인 체험 등 테마적 구현 필요
- ☐ (아카이브 구축) 세월호 참사의 기록은 희생자, 가족, 국민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하며,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교육과 전시활동에 활용
- ☐ (선체안전성) 선체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들과 논의가 필요하며, 건축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
- ☐ (디지털기록화) 다양한 매체를 전시관에 반영하여 현장감 재현, 충분한 검토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반영 필요

V. 기본계획 추진 방향

〈 기본계획 추진방향 도출 〉

- ◇ 세월호 선체 보존·처리 계획서, 국내외 사례조사, 자문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(가칭)국립세월호생명기록관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



**기본계획
추진방향**

- ▶ 기억과 공감의 공간
- ▶ 추모와 염원의 공간
- ▶ 사회적 책임의 공간
- ▶ 생명존중의 공간
- ▶ 복합전시/체험 공간



01
기억과 공감의
공간

- 세월호 참사의 객관적 사실의 기록
- 진실 탐구를 통한 공감과 소통의 공간
- 집단기억 형성의 공간

02
추모와 염원의
공간

- 세월호 희생자 추모의 공간
- 염원의 공간

03
생명존중의
공간

- 인간존엄성 회복의 공간
- 해양안전교육의 거점공간
- 안전사회에 대한 신뢰회복의 공간

04
사회적책임의
공간

-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공간
- 비판적 사고를 구현하는 공간
- 성찰을 통한 성숙한 인간 형성의 공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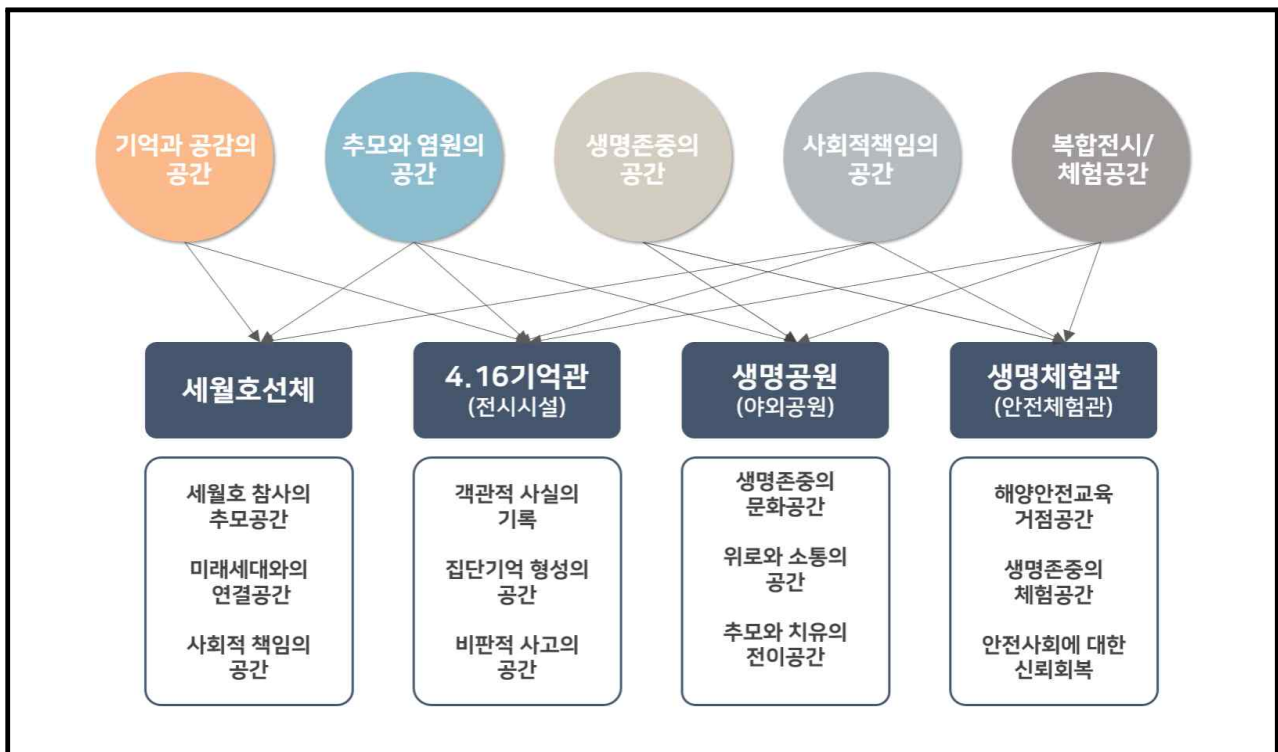
05
복합전시/체험
공간

- 치유와 힐링의 일상적 휴식의 공간
- 지역사회·문화와 교류하는 공간
- 생명, 안전, 재난대응 문화생산의 공간

VI. 주요 기본계획

1 주요 도입시설

◇ 선행연구와 (가칭)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의 건립목표를 고려하여 주요시설로 세월호선체, 4.16기억관, 생명공원, 생명체험관을 도입



1 세월호 선체

- (추모공간) 선체가 갖고 있는 참사의 모습(상징성)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파손선체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, 적절한 조명·자연 채광을 이용하여 추모공간을 조성
-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희생자와 미래세대의 매개체이므로 선체에 손을 대거나 추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세월호 희생자와 방문객이 교감할 수 있도록 함

- 세월호 선체의 상징성과 원형보존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전망대, 추모관 등을 설치하고 미디어아트, 프로젝션 매핑 등 다양한 연출 방법을 함께 고려

2 4.16 기억관

- (전시공간)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타임라인과 관련 기록, 영상, 상징물 등을 통해 보여주므로 방문객의 이해를 돕는 전시공간
- 상설전시관, 특별전시관, 아카이브, 영상관, 유품보관소로 구성되며 세월호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, 관계자 인터뷰, 관련 논문, 예술작품 등의 수집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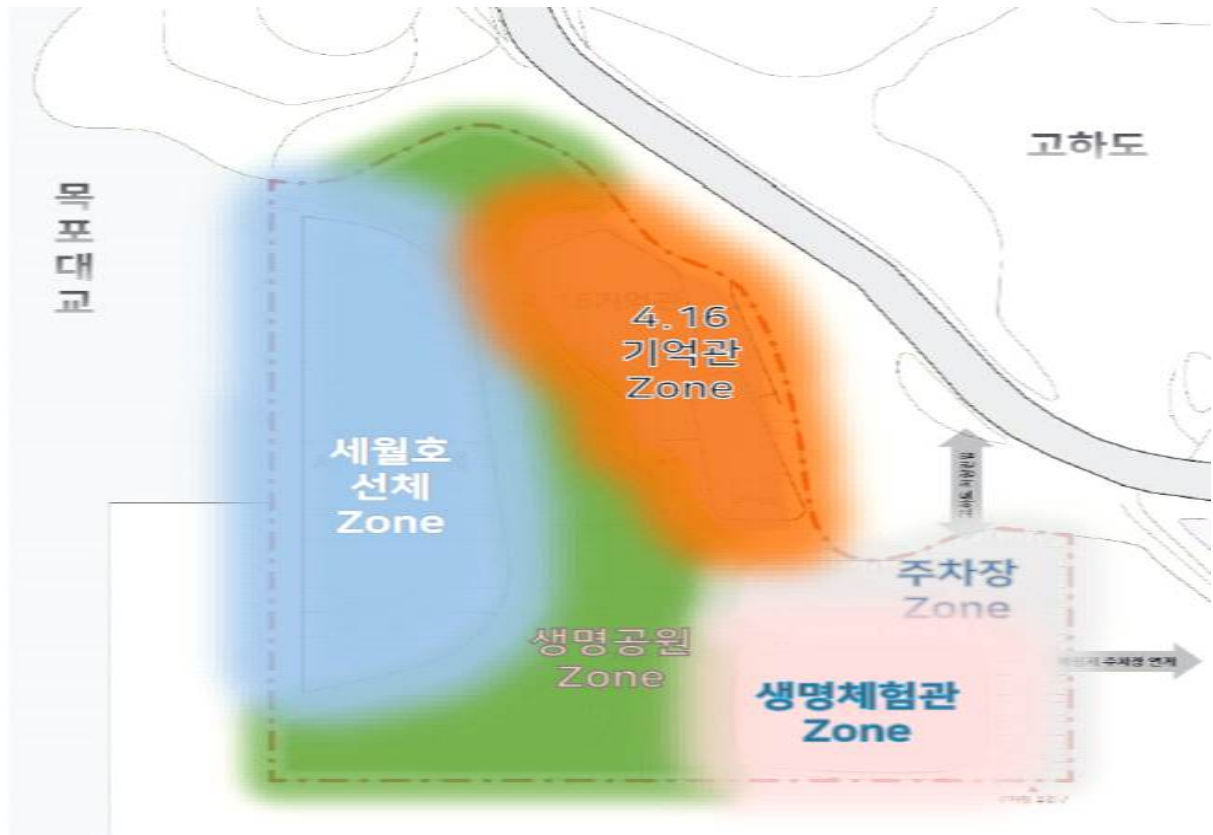
3 생명공원

- (복합문화공간) 생명공원은 자연 친화적이며 추모객과 국민,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공간이며, 일상적인 휴식이 일어나는 생명존중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
- 세월호 선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위로와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
- 선체에서 나온 반출물을 활용하여 조형물을 설치하여 추모가 치유로 전이되는 공간이 되도록 조성

4 생명체험관

- (해양안전교육) 생명의 소중함, 바다·선박에 대한 이해, 선박 안전 체험, 생존 수영체험, 개인안전 조치법, 어린이체험관으로 구성
- 생명존중의 가치를 체험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공간으로 해양안전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 및 체험시설을 기획, 이를 통해 무너진 안전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

〈 도입시설 배치도 및 조감도 〉



*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는 세부설계(기초자료조사용역, 일괄입찰방식)를 통해 변경 가능



2 부문별 계획

- ◇ 부문별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현 시점에서 사업예정지에 대응시켜 실제로 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시적 계획이며, 상세설계 등 이후 단계에서 수정·추가할 예정

1 부지조성 계획

- 고하도측 공유수면부지 34,000m²을 매립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

- 고하도 측으로 매립되어 전망대 측 녹지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습지 및 녹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상 부지의 이용 가능한 공간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

< 부지조성 평면계획 >



- 선체 이동을 위한 공유수면 추가 매립이 필요하며, 선체 및 하우징이 부지 서측에 남북방향으로 위치하여 상부시설 배치가 양호
- 호안 연장은 짧으나, 선체 이동을 위한 추가 매립 면적이 넓음

2 선체이동로 계획

- (기본방향) 선체 이동과정에서 안전사고, 선체파손 등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, 선체 이동로 부지계획 및 공사 중 교통통제에 따른 입주기업, 지역주민 등의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

< 동측배후도로 측면 경우 >

- (선체이동로) 항만배후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동측으로 이동하고, 항만시설용부지 일부를 가도를 개설하여 통과하는 (안)
- 고하대로 교통통제(민원 최소) 및 동측 배후도로 지하매설물(배수박스 등) 간섭 최소화로 외부 장애요소가 없는 가장 안전한 이동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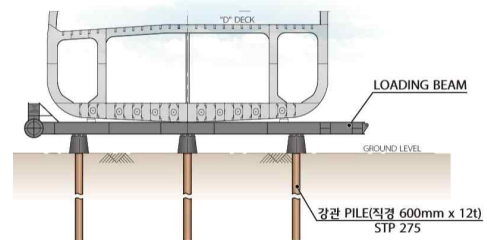


3 선체 거치대 계획

- 세월호의 영구거치를 위해 매립부지에 파일기초로 계획

- 세월호 선체를 지지하기 위하여 파일기초로 계획하였으며 상부 콘크리트 거더(H=1.4m, B=1.8m)에 하부는 강관 파일을 1열로 배치

< 선체 거치대 단면계획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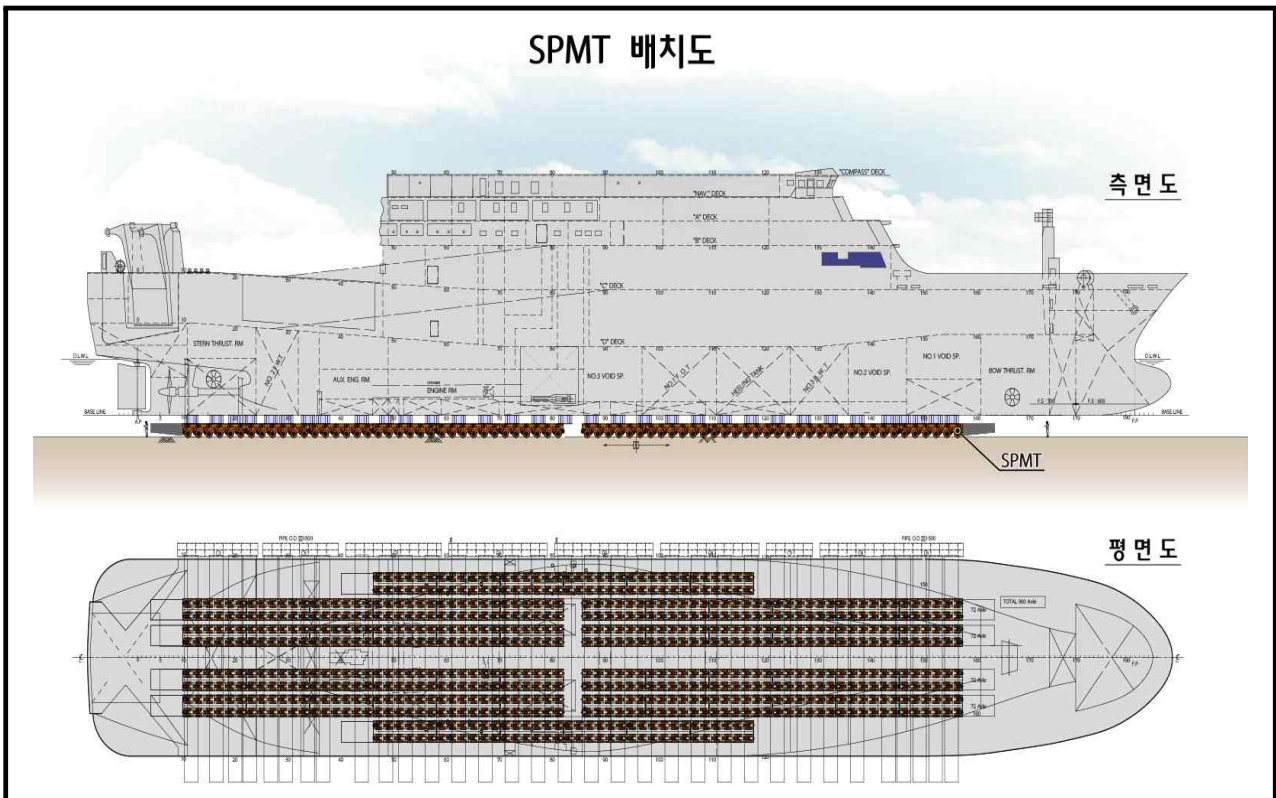


- 압축, 인장에 대한 강성이 크고 공종이 단순하여 시공이 용이한 강관 PILE($\Phi 600 \times 12t$)로 계획함

4 선체 이동

- 선체 이동방안은 이동 후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, 모듈트랜스포터(SPMT)를 이용하여 가장 안정적이고 최적의 육상 이동경로를 확보하여 경제적인 방안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검토
- (SPMT 배치) 360축 기준으로 내측 2줄 4열(6축 \times 12대 \times 4열=288축), 외측 1줄 2열(6축 \times 6대 \times 2열=72축), 총 3줄 6열로 배치하여 이동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

SPMT 배치도



5 선체 수리

- 선체 수리범위는 선체 내부진입로 및 하선로 확보, 선체내부 탐방공간 확보, 내부 통행로 확보, 이에 따르는 추가 보강 등, 수리 범위를 결정하여 유지보수
 - (외판부위) 선체의 파손원형 보존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구간 이므로, 외판을 대신하여 내부에 사이드 스트링거(Side Stringer) 혹은 H-BEAM 등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보강을 계획
 - (선체내부 통행로) 선체내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으므로 공동주택 공용실 등분포 활하중 약 $0.51\text{톤}/\text{m}^2$ (국토교통부령 제517호)에 준해 $0.5\text{톤}/\text{m}^2$ 이하는 내부수리를 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이동 통행로 확보
 - (선체내부 탐방공간) 선체내부를 활용하는 방안은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공간만을 이용하여 교육·기억·추모의 공간으로 활용

6 건축 계획

- (기본방향) 기억, 추모, 공감, 사회적책임, 체험을 통한 교육이 공존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구상
 - 세월호 및 4.16기억관, 생명체험관, 생명공원이 상호 조화되는 건축디자인을 구상, 상징성을 느낄 수 있는 건축조형을 디자인
 - 가장 중요한 콘텐츠 세월호 선체를 대면하기 위한 적정한 전이 공간이 담긴 건축 공간을 구성
 - 인접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을 비롯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건축디자인을 구상
- (배치계획) 선체반입경로와 시설배치의 적정성 고려, 외부조망의 간섭 최소화, 정적공간과 활동공간으로 나누어 시설배치
 - 세월호 선체의 반입경로와 거치의 기술적 사항과 4.16기억관과 생명체험관의 시설규모와 배치의 적정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요구
- (시설규모) : 가칭 세월호생명기억관 13,058㎡ 반영
 - 전시 및 추모공간 중심의 일반관람객과 안전체험 및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학생그룹 관람객에 대한 수요추정 결과 연간 약 37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
 - 일 방문인원은 성수기에 학생그룹 약 836명, 일반관람객 약 1,012명으로, 비수기에 학생그룹 약 358명, 일반관람객 약 434명 수준으로 예측

구 분	연간 방문 인원 추정	월 방문 인원 추정	일 방문인원 추정	
			최대(성수기)	최소(비수기)
학생그룹	143,300	23,883	836	358
일반 관람객 그룹	225,461	37,577	1,012	434
합계	368,761	61,460	1,848	792

- 선조위 '세월호 선체처리계획' 수립 당시 도출된 (가칭)세월호생명 기억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도입시설 구성

구 분	주요 도입시설
전시 기능	전시실(기억공간), 전시준비실, 영상실, 전시물품 보관고, 문서고, 기자재보관실, 아카이브실, 보존처리실 등
체험/학습(교육) 기능	안전체험 교육장, 사전교육장, 입체영상체험관(다목적홀) 등
추모/치유 기능	메모리얼 홀(추모공간), 기억정원(선체 조망/외부 조경시설 연계) 등
편의/서비스 기능	매표소, 물품보관실, 유아휴게실, 전시관 기념샵, F&B 시설, 안내실 등
관리/사무 기능	사무공간, 직원 휴게실, 회의실, 직원 탕비실, 식당 등

- (적정 시설규모 산정) 가장 많은 방문객이 입장하게 될 전시·추모 공간과 안전체험교육 공간의 면적을 규정하는 순간 체류인원 및 동시 체험인원은 각 150명으로 추정함

* 세월호생명기억관의 시설면적 산출은 수요추정을 통해 예측한 인원이 동시에 체류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

★ (시설규모) 13,058㎡

- (전시/추모공간 예상 관람객 수) 1,848명/일(성수기 일 방문객 기준)
 - * 전시실 내 동시 순간체류자 최대 규모는 150명(평균 관람시간 30분)로 산출하고, 이는 피크타임 4시간 동안 예상관람객의 65%가 체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
- (안전체험교육 참여인원) 150인/회
 - * 동시체험 인원은 사전교육 후 학생그룹 일 평균방문객 598명의 단체가 2개 그룹(각 299명)으로 나뉘어 안전 체험과 입체영상 체험 및 전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를 상정하여 회당 최소 참여인원 150명 기준 적용
- (공용면적) 최근 유사사례 시설구성 현황분석을 통한 적용 (전용면적의 50%)
 - *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용면적의 49%, 미래해양과학관 전용면적의 62%

<적정시설 규모 산출근거>

구분			시설면적(㎡)		산정 기준	
			적정면적 1)	KDI기준면적 2)		
기억관	추모공간	메모리얼홀 (홀 및 추모 공간)		450	298	- 추모 관련 전시영역으로 상설전시실 면적의 100% 적용
		기억의 공간(영상관)		270	-	- 메모리얼홀과 연결된 개방형 영상 관람 영역으로 기획전시실 면적과 동일
	전시공간	전시실	상설전시실	450	1,594	- 하루 평균 예상 방문객 1,848명(성수기 일 방문객 기준) - 피크타임 4시간 예상 방문객 수: 1,201명 (1일 예상 방문객의 65%) - 전시실 내 순간 체류자 최대 규모 : 150명 (30분 단위) - 전시실 평균 밀도배분 기준 : 3㎡ - 전시실 면적 추정 : 450㎡(순간 체류자수*평균 밀도) * 기획전시실은 전시실 면적의 60% 적용(박물관 건축계획 지표 연구 결과 상설:기획 전시공간 비중은 통상 3:1로 설정. 단 본 기관의 특성상 유물전시보다 기획전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통상 비중의 2배 적용)
			기획전시실	270		
			아카이브실 (교육공간 포함)	270	448	- 아카이브와 연결된 소규모 교육공간 포함 - 상설:기획전시실 비중 3:1 적용, 상설전시실 면적 30% 반영
		전시물품보관영역	전시준비실	90	-	- 지방청사 및 종합회관 표준 설계면적기준 [별표 1] - A유형인구 50만 이상 유사시설 면적 비중 30% 적용(반입실 포함)
			전시물품 보관고	270	-	
			보존처리실	45	-	
		자료실		248	-	- 기능에 따라 상설:기획전시실 비중 3:1의 이하 적용 - 상설전시실 면적 25% 반영
	편의서비스 공간		608	252	- 정부청사시설기준 면적 적용 - 순간체류자의 50% 동시이용객*3.3㎡ 기준	
	사무공간		563	768	- 정부청사시설기준 면적/ 지방청사 및 종합회관표준 설계면적기준 적용 - 근무 인원의 사무공간 및 회의실, 탕비/휴게실, 시설관리 인력 공간 포함	
	공용시설		1,768	1,935	- 기억관전용면적의 50% 적용 / 화장실, 창고, 복도, 로비, 승강기, 기계 전기실, 지원실등	
	기억관소계		5,303	5,295		
체험관	교육/체험공간	대강의실/사전교육장	410	672	- 1회 참가자 동시 교육 기준 / 동시수용 150명 기준 - 영화진흥위원회 작은영화관 조성 및 운영 매뉴얼 건축설계 검토 사항 50석 100석 극장 확보요구면적 기준 각 160㎡, 250㎡의 합 적용	
		선박안전체험 및 기타 안전체험 (선체, 선박사고 탈출 체험 등)	1,316	1,256	- 순간 동시 수용인원 (150명) x 1인당 안전체험 교육장 면적 (24㎡/인) - 국립 규모, 수상 안전 특화시설로서 생존수영 시설을 고려하여, 전문 수상안전 시설인 전북 119 수상안전교육 시설 1인 면적 44㎡의 50% 적용	
		바다생존체험 /해양체험 (선체 탈출, 생존 수영 수업 등)	1,973			
		입체영상체험관	410	330	- 대강의실과 동일 기준 적용	
	관리/사무공간		714	640	-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타당성 보고서 / 정부청사시설기준 면적 / 지방 청사 및 종합회관표준 설계 면적 기준 적용 - 근무 인원의 사무공간 및 회의실, 탕비/휴게실, 시설관리 인력 공간, 구내식당 포함	
	편의/서비스 공간		347	1,080	- 기억관동일 공간 시설 면적의 1.4배 적용 / 주 이용층인학생 그룹의 단체 방문 상황 고려	
	공용시설		2,585	2,880	- 체험관 전용면적의 50% 적용 / 화장실, 창고, 복도, 로비, 승강기, 기계 전기실, 체험시설지원실 등	
	체험관 소계		7,755	6,858		
총 건축 면적(㎡)		13,058	12,153			

1) 적정면적의 의미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요추정을 토대로 산출한 생명기억관의 필요면적을 뜻함

2) 기준면적의 의미는 이미 수행된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 적정성 검토보고서에서 산출한 면적의 총합계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설별 기능에 맞춰 기존 시설별 면적을 재배치함(총계는 바뀌지 않음)

< 유 사 사 례 >

구분	시설명	건축 연면적(m²)
4.16생명기억관	국립인천해양박물관	17,319
	대한민국역사박물관	11,117
	국립항공박물관	18,593
생명체험관	태백 365 세이프타운	18,911
	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	6,466
	경기해양안전체험관	10,037

□ **(선체하우징 계획)** 세월호의 보존과 세월호와 대면하는 건축 공간의 의도를 안정적으로 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

- **(타당성)** 세월호 인양 선체는 어렵게 인양한 참사의 증거이므로 인양 선체를 오랫동안 잘 보존하고,
 - 방문객들이 참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선체 대면을 위한 안정된 실내공간과 수직동선 구성을 위해 선체 하우징 필요
- **(경제성)** 하우징 건립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건축 비용이 발생하여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, 장기적인 관점으로
 -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경제적인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

□ **(인입시설계획)** 상수, 우수, 오수, 가스인입, 전기 및 통신 등 대상 부지내 인입시설 계획

- **(상수계획)**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최적의 관로를 구성
- **(우수계획)** 우수배제방식은 우·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배수계획 수립
- **(오수계획)**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자연유하식을 원칙으로 우·오수 분리 배제방식 채택

- (가스인입계획) 도시가스사업법 기준에 의거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최적의 관로를 구성
- (전기통신계획) 전력설비, 통신설비로 대별하고 공사비와 유지비를 절감시키며 시설계통의 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기설비를 계획

□ (조경계획)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,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명의 공간

- (개 념) 조형적이고 상징적인 건축물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외부공간 계획으로 공간마다 특색 있는 공간성 부여
- (식재계획) 상징성 있는 수종선정으로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기억, 추모, 위로의 의미를 담음



□ (주차장계획) 연면적과 목포시 조례 등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며, 매립부지 특성고려 지상주차 방식적용

- (연면적) (가칭)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과 세월호를 둘러싸는 하우징의 연면적을 합하여 총 20,558m²* 적용

* (가칭)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 연면적 13,058m², 하우징 연면적 7,500m²

- (주차대수산정)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를 137대* 산정

*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: 시설면적 150m²당 1대, 20,558m²/150m² = 137.05대

- (주차방식) 매립부지 특성상 물막이 구조물 등이 필요 없고, 저비용인 지상 주차방식 적용

7 콘텐츠 계획

- (콘텐츠 구성) 세월호 선체, 4.16기억관, 생명공원, 생명체험관으로 구분
 - (세월호) 진실과 추모의 공간을 주제로 선체내부 탐방로, 추모공간, 선체외부 야간경관을 조성
 - (4.16 기억관) 기억과 공감의 공간을 주제로 상설전시실, 기획전시실, 아카이브, 영상관, 메모리얼홀을 계획
 - (생명공원) 공감과 위로의 공간을 주제로 광장, 조형물 계획
 - (생명체험관) 생명존중의 공간으로 교육프로그램, 선박안전체험관, 바다생존체험관, 개인안전조치체험관, 어린이체험관을 계획
- (세월호 선체) 세월호 선체 자체를 하나의 상징물로 조성하여 선체가 갖고 있는 참사의 모습(상징성)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(상징물로 조성) 자연의 빛을 활용한 연출, 최소한의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 외 현상 보존
 - (방문객과 교감) 희생자와 방문객을 이어줄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추모, 소통, 위로의 메시지 전달
 - (세월호 자체의 메시지 전달) 미디어아트, 전망대 조성
- (4.16 기억관) 세월호 참사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수집,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하여 집단기억을 형성하는 공간
 - (기록물) 추모관·영상관·아카이브 구축, 세월호 선체 반출품과 유류품 활용, 디지털 타임라인 조성
 - (다양한 시각전달) 가족, 생존자, 잠수사, 어민, 자원봉사자 증언 및 외신 보도 등

- (사회적 책임)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결과, 선체인양과 생명 기억관 건립의 의미, 사건을 종합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콘텐츠
- (생명공원) 다양한 가치와 활동을 이어주는 매개공간, 방문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
 - (위로의 언덕) 세월호 선체, 바다, 기억관, 주변경관 조망할 수 있는 언덕,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쉼과 위로의 공간
 - (추모와 소통의 광장) 다양한 야외전시 및 문화활동 광장, 세월호 프로젝션매핑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야간활동 진행
 - (기억과 사색의 조형물) 세월호 선체 반출물을 활용한 조형물, 사색과 위로의 조형물, 야간경관 활용
 - (공간조성) 희생자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, 사시사철 나비를 볼 수 있는 조형물(Aviary), 희생자의 영혼과 생명의 영속성을 보여줌
 - (정체성을 담은 조형물)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 담은 조형물,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조형물로 조성
- (생명체험관) 생명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에 특화된 체험형 교육의 거점시설 기획
 - (사전교육)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적용
 - (바다와 선박의 이해) 바다의 속성, 선박의 원리 및 구조 등 체험 대상에 따른 단계별 교육운영
 - (선박안전체험관) 선체기울기, 화재, 대피탈출, 선박에 구비하고 있는 각종 안전장비 활용법 등
 - (바다생존체험관) 수영장 등을 이용한 생존수영 방법, 이안류 체험, 선체 탈출, 구명정 탑승, 구명부환의 활용 등 포함

- (안전조치 체험관) 심폐소생, 저체온증, 화상 등 응급조치법 등
- (어린이 체험관) 참사관련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영상, 자료 등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체험

8 세월호 선체 내부활용방안

- (기본전제) 선체내부를 활용하는 방안은 최소한의 공간만을 이용하여 교육·기억·추모의 공간으로 활용하고,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

* 세월호 선체보존·처리계획서 (p244)

□ 가족단체 요청사항

- (탐방경로 조성) 진입로 및 하선로, 선체내부 통행로 조성, 'D', 'C', 'B', 'A', 'NAVI' 데크 순서와 'E' 데크 등 탐방경로 조성
- (선미 및 객실복원) 선체수습 등으로 제거된 선미부분 복원과 여학생 및 남학생 등 객실복원
- (추모공간) 'B'DECK 선미 복원공간에 빛과 일부 조형물을 활용하여 상징적인 추모공간 조성
- (로비공간 복원) 'B'DECK 안내데스크와 로비공간을 복원하고 단원고 학생들의 활동영상을 빔프로젝트를 통해 재현
- (체험공간 조성) 세월호 침몰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공간으로 세월호 선체의 조타실은 파손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, 별도로 'A'DECK 선미복원공간에 선박조정시뮬레이터 체험공간 조성

- (공간 디지털화) 파손선체의 원형보존과 안전상 선체내부 활용이 곤란한 공간은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시 기획 및 공간조성 방법으로 방문객과 공감을 주고받는 3D 디지털 기록화 및 영상상영

- (내부활용방안)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, 상위계획(세월호 선체 보존·처리계획서) 적합성,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하고,
- 전문가, 가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조사용역 및 일괄입찰 절차('24~'25)를 통해 선체 안전성, 분야별 세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필요

9 준공후 운영방안

- (운영인력 산정) (가칭)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은 생명 안전이라는 특수 주제를 다루는 복합문화시설로 사회문화적 유대와 연대감을 전제로 국민에게 수준 높은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
- 전시, 추모, 안전체험 등 기능적으로 복합화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역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조직체계 지향 필요
- 운영 및 사업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하여 특수법인 방식과 해수부 직영 2가지 대안에 따른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

구 분	합 계	총괄	운영지원 인력			세월호 특화 사업/기획 운영인력			
			경영/정책	마케팅/고객 서비스	자산 및 시설관리	세월호 특화	선체 탐방	콘텐츠 기획	안전체험/교육
특수법인 방식	88명 (100%)	1명 (1%)	11명 (13%)	5명 (6%)	15명 (17%)	18명 (20%)	8명 (9%)	8명 (9%)	22명 (25%)
직영 방식	41명 (100%)	1명 (2%)	6명 (15%)	3명 (7%)	5명 (12%)	8명 (20%)	4명 (10%)	4명 (10%)	10명 (24%)

VII. 향후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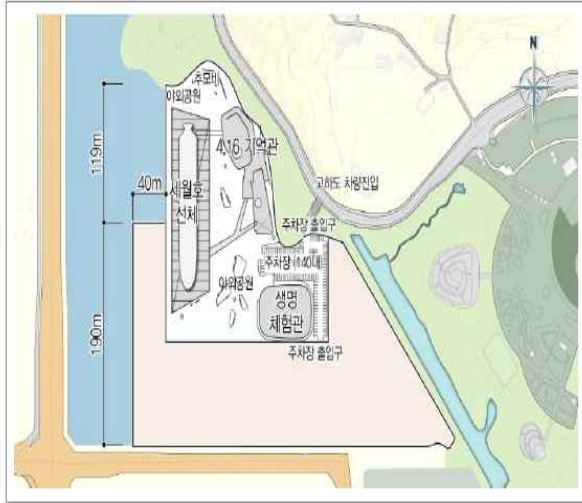
- '23.12월 :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기본계획 고시
- '23.12월 :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기초자료조사용역 발주
- '24. 2월 :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기초자료조사용역 시행
- '25. 7월 :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공사(터키) 추진

VIII. 투자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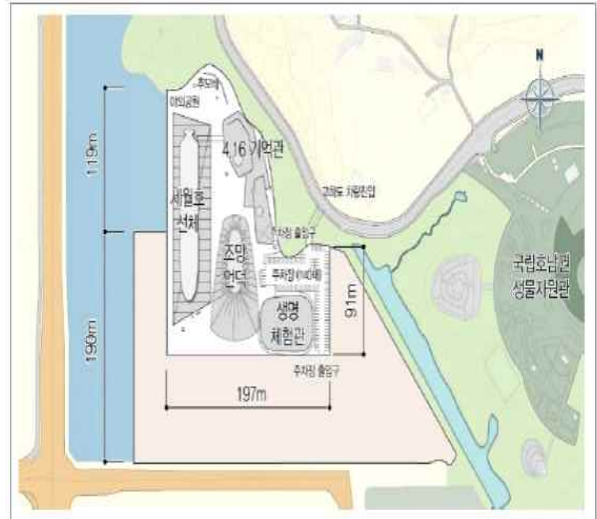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현 행	변경요구	증 · (△)감	비고
<총사업비>		211,690	251,340	39,650	
□ 공사비		160,452	206,627	46,175	
토목	호안공사	22,906	21,815	△1,091	
	매립공사	5,451	8,101	2,650	
	콘크리트포장	0	6,246	6,246	
	육상거치대설치	1,558	2,878	1,320	
	연약지반처리	14,528	9,863	△4,665	
	도로확장및호안보강 (선체이동로)	52,151	37,274	△14,877	
	배후부지조성공	2,348	1,917	△431	
	기타시설공	1,151	1,265	114	
	배수공	0	754	754	
	소계	100,093	90,113	△9,980	
선체	선체보수	4,301	9,225	4,924	
	선체세척도장	3,386	3,902	516	
	SPMT비용	1,320	1,980	660	
	거치대제작	1,113	90	△1,023	
	소계	10,120	15,197	5,077	
건축	건축공사비	33,871	45,527	11,656	
	제로에너지공사비	1,694	4,362	2,668	
	신재생에너지공사비	220	297	77	
	공원조성비	2,619	2,200	△419	
	하우징 공사비	0	28,364	28,364	
	소계	38,404	80,749	42,345	
콘텐츠	전시물제작설치비	11,835	17,532	5,697	
	선체내부전시물	-	1,606	1,606	
	3D스캔디지털아카이브	-	1,430	1,430	
	소계	11,835	20,568	8,733	
□ 보상비		14,257	0	△14,257	
○ 보상비		14,257	0	△14,257	
□ 시설부대경비		17,736	21,864	4,128	
○ 설계비		10,379	11,721	1,342	
○ 감리비		7,011	9,668	2,657	
○ 시설부대비		346	475	129	
□ 예비비		19,245	22,849	3,604	
○ 예비비		19,245	22,849	3,604	

<제1안 공원이용 공간연계안>



<제2안 생태언덕 조성안>



<제3안 생태 건축물
(선체+기억관) 이용 공간조성안>



<제4안 생태 건축물
(선체+기억관+체험관)이용 공간조성안>



* 시설배치도는 세부설계(기초자료조사용역, 일괄입찰방식)를 통해 변경 가능